

‘영암 시종 고분군’ 마한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다

국가유산청, 국가지정유산 지정...역사적·학술적 구체적 가치 인정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내동리 쌍무덤’ 등 발전된 축조기술 특징

영암 시종면 일대는 서해바다와 내륙의 길목에 자리하는 요충지다. 영산강 분류와 삼포강 등이 인접해 있어 고대국가 시대 지역 토착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일궈낸 지역이다.

특히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토착세력은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면서도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에서는 독자적인 관계를 형성할 만큼 나름의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 출토)

일반적으로 흙과 돌을 활용해 묘역을 설정하고 분구를 높이 쌓아 올린 고분을 고총고분이라 한다. 영산강 유역 고총고분은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진다.

이곳은 마한 고유의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난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변화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들이다.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영암 시종 고분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눈길을 끈다.

국가유산청은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종면에는 영암 군에 자리한 총 49곳 고대 고분 중 모두 28곳이 분포해 있다. 그 가운데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



‘금동관 세움 장식’
(내동리 쌍무덤 출토)



‘영암 시종 고분군’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됐다.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 (왼쪽), ‘내동리 쌍무덤’.

〈국가지원유산청 제공〉

무덤’은 영산강 유역의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축조기술 등이 타 지역과 변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마한의 전통적 옹관묘와 다른 부분들로, 대형 분구 축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설계적인 측면에서 축조 과정의 계획성과 아울러 당대 토목 기술의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유적은 점토덩이를 매개로 방사형이나 동심형 형태로 구획하고, 이를 토대로 성도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네모 형태를 방대형이라 하는데, 높게 쌓는 토목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구조라는 데 이견이 없다.

출토 유물은 당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영산강에서 활발하게 활용됐던 토기를 비롯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방증하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됐다.

특히 봉분 외곽 장식에 쓰였던 원통형 토기를 비롯해 동물형상 토제품도 발굴됐다. 이 같은 유물은 고유의 유물이라기보다 외래의 것을 현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 지역 토착 세력은 주변 국들과의 교류 속에서 독창적 문화를 일구는 한편

나름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출토 유물로는 중국 청자잔과 동남아시아산 유리 구슬도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 토대를 배경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여 현지화한 고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트그룹 바람꽃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정기전...26일까지 여수미술관

새로운 시작.

벌써 하반기에 들어선 지도 일주일일이 지났다. 지금쯤이면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거나 아니면 흐지부지돼버렸을 수도 있다. 계획이 온전히 실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아도 될 것 같다. 아직 올해가 반년이나 남았으니 말이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아트그룹 바람꽃이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여수미술관에서 26일까지 세 번째 정기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회원들 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바람꽃은 매월 1회 야외스케치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성을 키우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는 류미숙, 박규남, 서봉희, 송지윤, 안태영, 윤미란, 윤희경, 이금주, 이지선, 장연희, 정소영, 정순용, 정지호, 조하나, 천기정, 최용석, 최이루, 허정아 회원이 참여한다.

장연희 작가의 ‘썸’은 보는 이에게 편안한 휴식을 준다. 편안한 의자 주위로 펼쳐진 꽃들과 푸른 잎들



류미숙 작 ‘lover’

은 보는 이에게 잠시 미소를 짓게 한다.

작가는 “자연의 요소들은 에너지이자 휴식처이며 보이지 않는 생명력과 인내를 상징한다”며 “작품은 자연 속에서 타자와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존재를 말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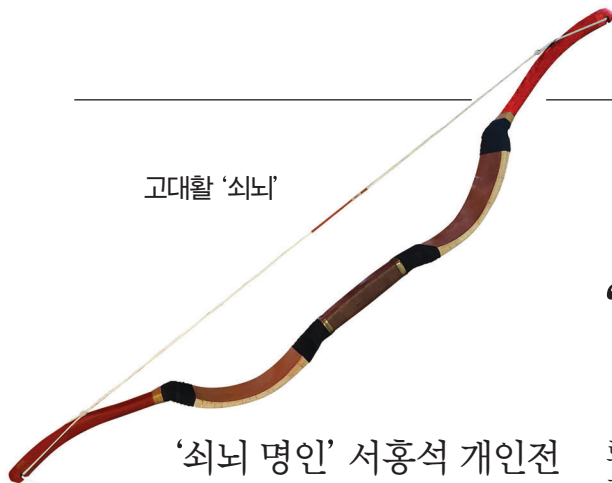
이금주 작가의 ‘내안의 숲’은 저마다 마음속에 드리워진 자신만의 ‘숲’을 형상화했다. 화사하거나 밝지는 않지만 단단하면서도 우람한 나무와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한 무수히 많은 잎들은 내면에 자리한 ‘자아’를 상징하는 듯하다.



장연희 작 ‘썸’

윤희경 작가의 해맑은 소녀의 마음 속 두근거림을 그린 ‘첫사랑’, 이지선 작가의 축제가 끝난 뒤에 도여전한 기운을 발하고 있는 꽃을 구현한 ‘After Festival’도 미소를 짓게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대할 ‘쇠뇌’

잊혀진 전통 무기 ‘쇠뇌’를 아시나요

‘쇠뇌 명인’ 서홍석 개인전
10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우리의 전통 무기 가운데 ‘쇠뇌’가 있다. ‘화살을 여러 개 계속해서 쏘게끔 고안된 활의 하나’를 일컫는다. 활의 재료에 ‘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동기 시대 유물인 단발식 쇠뇌의 방아를 문치가 있다. 고분벽화에도 쇠뇌 관련 자료가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쇠뇌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쇠뇌명인’ 서홍석 작가의 ‘쇠뇌 찾아가는 박물관: 사라진 역사의 조각, 되살아나는 지혜’전이 오는 10일까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실에서는 쇠뇌는 8점과 깃발, 궁기(깃발), 장창 등 모두 23점을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단의 전시공간지원 일환으

로 기획됐으며 작가에게는 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독창적인 문화유산인 ‘쇠뇌’는 우리민족의 과학적 사고, 손기술, 창의력이 결합된 산물이다. 한마디로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다층적인 경험이 녹아 있다.

서홍석 작가는 “쇠뇌를 재현해온 지는 25년 됐다. 광주에서 활동하며 무예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유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고 쇠뇌를 재현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고대 무기인 쇠뇌를 비롯해 많은 문화유산은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실정이다”며 “그러나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찾아가는 박물관 콘셉트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작가는 “옛 것은 우리나라 역사이며 발자취다. 실질적으로 문헌에 잘 나와 있지 않다 보니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접하기 어렵다”며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고대 유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름밤 수놓는 금관의 향연

양상블 P&S ‘FESTIVAL’
1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양상블P&S가 오는 11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과거 공연 모습. 〈양상블P&S 제공〉

맑고 강렬한 금관의 선율이 광주의 여름밤을 수놓는다. 클래식부터 재즈, 라틴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금관양상블의 깊은 울림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양상블 P&S는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관객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전한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FESTIVAL’. 금관악기의 강렬한 음향과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마치 축제처럼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해온 전문 연주자 10인으로 구성된 브라스 앙상블의 정수가 담긴 무대다. 정현의 지휘 아래, 해설은 클래식 칼럼니스트 장일범이 맡아 공연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피아니스트 김현정의 협연이 곁들여져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채운다.

프로그램은 르네상스 시대 작곡가 티엘만 수자토의 ‘수자토 모음곡’으로 막을 연다. 궁정무곡을 기반으로 한 이 곡은 브라스 특유의 생동감으로 고전적 아름다움을 재현한다. 이어지는 율리우스 푸치코의 ‘플로렌티나 행진곡’은 군악대 스타일의 힘과 오페라적인 극적 요소가 결합된 작품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트럼펫 연주자 라파엘 멘데즈의 편곡으로 유명한 ‘마카레나’는 열정적인 라틴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곡이다. 스페인의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이 곡은 빠르고 민첩한 금관 연주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피아니스트 김현정이 협연하는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에서는 재즈와 클래식의 조화, 도시적 감성이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전한다.

공연 후반부에는 유머와 위트가 돋보이는 크리스 하젤의 ‘세 마리 고양이와 또 다른 고양이’가 연주

된다. 각각의 고양이를 표현한 네 개의 악장은 연주자의 개성과 유쾌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웃음과 물감을 동시에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장엄하고도 축제적인 분위기의 이 작품은 여름밤의 콘서트를 환상적인 마무리로 이끈다.

김옥길 호르니스트는 “이번 공연은 정통 클래식부터 친숙한 외국민요, 재즈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평소 접하기 힘든 악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며 “관객들이 한여름 축제 같은 금관악기의 향연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상블 P&S는 2016년 창단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공연과 초청 무대를 통해 광주 지역에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넓혀왔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역량있는 작가 발굴 ‘광주신세계미술제’

21일까지 공모...광주·전남 출신 작가 대상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미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공모제다. 올해도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실질적인 작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돼 왔다. 수상자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금 외에도 개인전 개최와 전시 준비를 위한 창작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2024년부터는 대상 상금을 500만 원 증액해 대상작가 총상금 2000만 원(상금, 전시 지원금 포함), 신진작가는 총상금 1000만 원(상금, 전시 지원금 포함)을 지원한다.

응모는 현재 광주, 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 또는 광주, 전남 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면 가능하다.

심사는 1차 포트폴리오 및 전시계획안을 2차는 프레젠테이션 및 작품을 심사한다. 1차 선정작가 발표는 오는 8월 11일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펼쳐진다.

최종 수상작가는 ‘1차 선정작가전’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가(대상과 신진작가상) 개인전은 내년 10월 예정돼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 백지홍 큐레이터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를 토대로 미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지역 문화와 미술계 네트워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희망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